

# 분단 반세기! 한국전쟁의 기념관

-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전시관과 용산의 전쟁기념관 -

정호기 한국현대사회연구소 연구원



전쟁기념관의 형제의 상.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인 페프가 제1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다룬 「어느 날 밤, 전쟁기념탑에서……」라는 책의 일부가 2002년에 번역 후 출판되었다. 이 책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른들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조국을 위해 조국 땅 곳곳에서 목숨을 바친' 병사들이다. 이들은 전쟁기념탑에서 빠져나와 '그들이 치렀던 전쟁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한다. 아마도 이러한 의문은 전쟁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전쟁에서 희생자가 발생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현재도 이라크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휴전이 이루어지지 정확히 반세기가 흐른 현재도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동춘 교수는 「전쟁과 사회」에서 '한국전쟁에 관한 한 민족, 민중, 인권, 여성의 관점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으며 오로지 국가의 관점, 반공의 관점만 있다', '북한의 전쟁관도 남한측의 공식적인 전쟁관과 동일한 논리구조에서 있다', 한국전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과 집단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고 말하는 방식과 내용,

1) 엘리아 카네티(Elias Canetti)는 「권력과 권력」에서 '전쟁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정기용 교수는 '한국전쟁은 누구를 위해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가에 있지 않고, 이 전쟁을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대하는 것이 한반도를 휩쓸었던 파괴와 절망, 고통의 역사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주장의 전개방식까지 제약을 받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 전쟁과 기념 혹은 기억

전쟁을 기념하는 행위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고대 로마의 개선문과 같이 건축물을 만들기도 하고, 기념비 혹은 상징조형물을 건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의 주위에 산재되어 있는 대다수의 전쟁관련 기념물들은 근대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근대에 발생한 수많은 전쟁이 기념공간, 기념물, 기념관 혹은 박물관들을 조성하게 된 계기였다. 이러한 기념행위의 상당수는 승전(勝戰)을 상징한다. 그러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Auschwitz)와 일본 히로시마의 평화공원 등과 같이 전쟁의 비극과 참혹한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희생자들의 죽음을 기리는 위령비가 건립된 경우도 있다. 그 형태가 어떻든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기념행위들은 항상 가치를 지니고 있고, 과거의 사건을 단순하게 알리는 기능이 아니라 현재와의 관계 및 필요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전쟁의 담론이 과거에 대한 기억을 지배할 가능성이 많다.<sup>2)</sup> 한국전쟁에 관한 기억과 기념은 이러한 주장과 잘 부합된다.

근래에 들어 왜 휴전일을 기념하지 않고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을 기념하며, 이를 기준으로 전쟁의 성격을 규정짓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국전쟁을 지배하고 있는 기억에 균열의 지점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해마다 6월을 지배하고 있던 한국전쟁과 관련된 담론은 1987년 6월민주항쟁이 이후에는 다소 상쇄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6월에 대한 새로운 담론으로 2002년에 있었던 월드컵에 대한 기억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학문적 영역에 있어서도 전쟁의 배경, 기원, 발발에 대한 연구 못지 않게 전쟁의 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실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김동춘 교수의 주장처럼, 클라우제비츠(Calusewitz)와 같이 전쟁이 '정치'의 연장이라고 한다면, 정치의 행동

은 그 과정과 결과에 의해 평가받아야 하고, 민중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정과 결과인 경우가 더 많다'라는 문제의식이 공감을 얻고 있다.

### 국립현충원의 기념관

국가보훈처가 1996년에 발행한 「참전기념조형물도감」을 보면, 전국에 건립된 참전기념조형물이 총 667개(해외 포함 702개)였다. 그런데 이 책이 발행된지 불과 8여 년이 흐른 오늘날 국가보훈처의 홈페이지에 실린 '국가수호시설'은 842개로, 그 사이에 175개나 증가했다.<sup>3)</sup> 이 가운데 한국전쟁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념공간인 국립현충원과 전쟁기념관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996년 6월부터 권위주의와 군사정권과의 친화성을 탈피하고자 국립현충원으로 명명되기 시작한 동작동 국립묘지와 대전 국립묘지는 분단된 한반도의 비극을 가장 잘 알려주는 기념공간이다.<sup>3)</sup>

앤더슨(B. Anderson)이 말한 바와 같이, 국립묘지는 '민족국가'라는 일정한 영토적 개념에 기초하고 시민권과 병역의무가 결합되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한국에서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국립묘지가 조성되었는데, '국군묘지'라는 처음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군인과 군무원이 주요 안장 대상이었다. 그

전쟁기념관 원형광장. 전면에 보이는 건물은 국방부 건물



2) 안장묘는 「현대건축50년」에서 전쟁이 끝난 후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전쟁기념탑을 분단을 고착시키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이데올로기가 되는 모습으로 전개되었다고 비판한다.

3)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고, 친숙하게 알려진 국립현충원은 동작동 국립묘지이다. 대전의 국립묘지는 동작동 국립묘지를 모태로 하여 1976년에 위치가 결정되고, 1979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다. 동작동 국립묘지는 수 차례에 걸쳐 화장 및 시설 보완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반면, 대전의 국립묘지는 일시에 조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상징성이나 기원성에서 앞선 동작동 국립묘지에 초점을 맞춘다.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탑

러다가 1965년 3월 30일 국립묘지로 승격되면서 애국지사, 경찰관, 향토예비군 등도 안장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동작동 국립묘지에 기념관이 처음 개관한 것은 1961년 12월 5일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1980년 12월에 '현충관(영화관)'이, 1990년 8월에 '기념관(유품 전시관)'이, 그리고 1991년 11월에 '호국관(사진전시관)'이 각각 건립되어 그 기능이 분화되어 있다. 이 중 기념관과 호국관이 전시관의 기능을 하고 있다. 430여평의 철근 콘크리트 기와조 2층과 기둥, 주춧돌, 지

붕 등에 한국식을 가미했다고 하는 이 절충식 두 건물은 동작동 국립묘지의 좌측 공간에 '현충관'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먼저 건립된 기념관은 일제하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한 '충렬실', 한국전쟁·대간첩작전·월남전의 희생자와 전리품을 전시한 '충무실', 그리고 해방 이후 국가유공자의 유품과 관련된 자료를 전시한 '충훈실'로 구분되어 있다. 일단 이 세 가지의 기념 대상들이 영관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민주화운동'과 관련지어 보면 '충훈실'은 가치관에 혼란을 준다. 왜냐하면, 충훈실에는 4월혁명의 원인 제공자인 이승만 대통령과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유신독재체를 수립한 박정희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호국관의 사진전시관은 1층에 제1, 3전시관이, 2층에 제2전시관이 배치된 총 3개의 전시관으로 구분되어 있다.<sup>4)</sup>

각 전시관이 개관된 시기가 1990년대 초반이었던 만큼,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평범한 전시기법이 주를 이룬다. 각 전시관을 구성하고 있는 주제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 대체적으로 제2전시관은 독립운동과 정부수립과 한국전쟁을, 제3전시관은 통일을 주제로 한 것인데, 각 전시물과 내용을 살펴보면, 1960~80년대의 극단적 반공이데올로기와 199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된 남북의 화해무드가 애매하게 만나고 있는 듯 하다.

### 한국전쟁과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의 군영으로, 해방 이후에는 육군본부로 사용되던 용산에 건립되었다. 1988년 6월 노태우 대통령의 국방부 순사에서 「전쟁기념관 건립계획」이 보고된 것을 시작으로, 90년 9월에 착공식을 갖고 94년 6월에 개관되었다.<sup>5)</sup>

오늘날 홍보되고 있는 전쟁기념관의 건립 목적은

4) 제1전시관은 '추모의 장'으로 만들어져 있고, 제2전시관은 '민족의 성역 국립묘지, 항일독립운동과 광복,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전쟁, 북한의 실상, 영상실'로, 제3전시관은 '통일을 향한 노력의 발자취, 북한의 대남도발, 꺼지지 않는 철책선 분빛, 참이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귀즈박사'로 기획되어 있다.

① 호국자료의 수집, 보존 및 전시, ② 전쟁의 교훈과 호국정신을 배우는 산 교육장, ③ 선열들의 호국위훈 추모이다.

그러나 전쟁기념관을 건립한 가장 큰 이유는 1988년 7월 초에 청와대 안보보좌관실에서 작성하여 국방부로 전달한 「한국동란기념사업계획」과 이 계획에 의해 국방부가 동년 9월에 작성한 「한국전쟁 기념사업 추진계획」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전쟁'을 기념하려는 것이었다. 최초 계획에 제시된 기념관의 건립 이유는 '반공안보관 확립', '민족통일관 재정립'이었는데, 북한에서 이루어진 한국전쟁 관련 기념사업을 의식해서였다. 그렇지만 1989년 4월에 개최된 제1차 자문회의 이후부터 고대로부터 한국전쟁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전쟁과 군사관련 내용으로 기념의 대상이 확장되었다.

전쟁기념관이 건립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공사가 착공된 직후인 1990년 11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정몽준(민자) 의원이 '소요 예산의 과다와 급변하는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의 유동성' 등을 이유로 건립의 필요성에 의문을 던졌던 것이다. 전쟁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여론은 1993년 6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전쟁기념관의 의의와 필요성, 전시내용, 예산의 충당 방법, 전시물의 구입 방법과 내용, 그리고 공사 과정의 비리 의혹과 앞으로의 운영 등 다양한 문제점이 포괄되어 있었다. 이에 당시 집권당인민자당은 6월 14일에 사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쟁기념관을 민족기념관으로 바꾸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역사기념관과 문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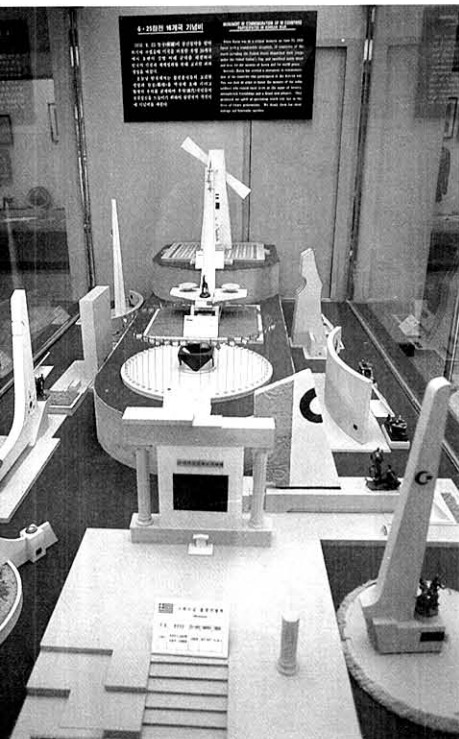


위)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문  
아래) 동작동 국립묘지 충훈실 전시관

념관, 그리고 한국전쟁을 기리는 전쟁기념관 등을 두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김영삼 대통령은 그 며칠 후에 예정대로 전쟁기념관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이유는 "전쟁기념관이 특정 목적으로 설계해 이미 완공단계에 있어 설계변경이 어렵고, 박물관으로 쓸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sup>5)</sup>

전쟁기념관은 성벽의 방어용 해자(壕)를 상징하는 연못을 지나면 원형 광장이 나오고, 이를 통과하여 본관의 중앙홀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 원형 광장

5) 35,330평의 부지에 건립 25,419평, 전시면적 10,100평의 규모를 갖춘 이 기념관은 1,246억 원이 사용되었으나, 부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개관 당시 약 6,200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추산된다. 「전쟁기념관 건립사」에 의하면 1964년부터 1971년까지 사단법인 유엔한국참전협회회가 「가칭 한국전쟁기념관의 건립 계획」을 추진하였고, 1972년에는 중앙정보부에서 「가칭 4225전쟁관 건립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1980~81년 사이에 국방부 내에서 세가지의 전쟁기념관 건립 방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또한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9월에 '유엔한국참전협회회'가 「가칭 호국군사박물관 건립 계획」을 국회에 건의하였고, 동년 10월 22일에는 국방부장관과 문화공보부장관 그리고 서울시장이 「6·25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적도 있었다.



동작동 국립묘지 충훈실에 전시된 6·25 참전국가 기념비 모형물



전쟁기념관 건물 전경

의 주위에 한국전쟁과 월남전 등에서 사망한 군인과 경찰 16만여명의 명비를 설치한 회랑(回廊)을 배치함으로써 선열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을 상징하고, 그 신성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기념관은 엄숙·장엄한 성격을 표출하도록 중심축에 배치하였고, 경건함과 장엄함을 강조하기 위해 중심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구성되었다.

기념관은 총 6개의 실내 전시실과 옥외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500여점의 전시자료를 갖추고 있다. 6개관은 호국추모실, 전쟁역사실, 한국전쟁실, 해외파병실, 국군발전실, 대형장비실 등 이다. 이 가운데 한국전쟁실은 전시 품목 수나 전시 면적 등 규모와 예산에 있어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갖고 있다. 한

국전쟁실에는 전쟁발발의 배경, 남침, 반격, 중공군의 개입, 전선 교착, 휴전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사건 중심의 서사구조의 형태를 보여준다. 사건이 중심이고, 당시에 전쟁을 겪던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고통은 조연으로 배치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전쟁기념관에는 다른 희생자들의 죽음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양민학살과 전쟁이 가져다 준 비참한 역사의 흔적에 관한 부분에는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 결과는 부국강병과 엄청난 군비를 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진상과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공감하기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전쟁기념관이 지향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준다고 하겠다.

###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엄밀한 의미에서 한반도 전역이 한국전쟁의 흔적을

6) 전쟁기념관은 이런 우여곡절을 반영하여 '전쟁기념관'이라는 노태우 대통령의 친필 휘호탑(揮毫塔)이 있고, 기념관 본관 현관 중앙 상부에 "愛國殿堂"이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휘호가 걸려있다. 그리고 기념관 앞 원형의 전면광장의 중앙 부위에 '문민을 상징하는 백백'이 배치되어 있다.

담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기념공간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국전쟁과 관련한 기념물은 이미 충분히 만들어졌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전쟁을 기념하는 공간과 기념물이 한반도 곳곳에 세워진 만큼, 우리의 평화로운 미래는 보장되고 있는 것일까? 한국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는 치유된 것일까?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양민들과 이들에 대한 학살의 기억은 공식적 영역으로 부상하여 역사화되었는가?

치욕의 전쟁으로 기록되는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들을 영웅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극찬을 받고 있는 베트남 참전 기념비(Vietnam Veterans memorial)를 건립한 미국은 이후에도 명분이 없는 전쟁을 또 다시 벌였고, 핵폭탄의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평화기념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국주의는 강화되는 추세이다. 전쟁기념물의 존재와 예술성, 그리고 상징성과 무관하게 전쟁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전쟁 그 자체가 기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평화와 희생, 그리고 한국전쟁이 갖는 특별한 의미인 통일의 방안 등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동작동 국립묘지

김영범 교수가 「한국전쟁과 양민학살」이라는 논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전쟁에 대한 진정한 기념은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학살 관련 기억이 자신있게 말해지는 날부터 시작된다고 할 것이다.

### 〈한국전쟁 관련 주요 기념사업〉

사업유형	명칭	건립 장소	완공일시	주요 내용
	UN기념묘지	부산시 대연4동	1951. 4.	약 45,000평의 규모로 1974년에는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UN군 전사자가 11,000여명 있었으나, 현재는 2,300여기 남아 있음. 1964년에 추모관이, 1968년에는 기념관이 UN에 의하여 각각 건립되었음.
집단묘지	국립현충원 (동작동국립묘지)	서울시 동작동	1956. 4.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들을 안장하기 위한 묘지로, 1954년 3월에 착공하여 1956년 1월에 최초 안장이 이루어졌으며, 동년 4월에 "국군묘지 설치법령"이 제정됨.
	국립대전현충원	대전시	1985. 11.	동작동 국립묘지가 만장이 되어가자 대전에 분원으로 조성함. 구성요소는 거의 유사하나, 체계적으로 배치되었음.
	영천호국용사묘지	경상북도 영천군	2001. 4.	1995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현충사업단이 발족하면서 추진되었던 집단묘지로, 한국전쟁 등 군인 및 경찰 출신의 사망자 묘지.
기념관	전쟁기념관	서울시용산동1가	1994. 6.	연건평 25,000평의 지하 2층과 지상 4층의 건물로, 총 6개의 실내 전시실과 옥외 전시실, 기타 부대 시설 등으로 구성됨.